19\_W <교육심리> 2013-12815

과제1\_자기성찰보고서 체육교육과 이동주

**‘나는 왜 공부 (안)했을까, 공부 (안)할까’**

중학생 때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받았다. 학교에서 내신도 훌륭했고, 교육원 친구들과 함께 과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것이라 의심이나 걱정 없이 믿었다. 교육원 동기들 중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음에도 고교 진학에 실패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입학고사에서 출제될 것이라 미리 고지된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았음에도 입학 시험에서 2등을 하게 된다.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은 내게 그리 설레지 않았다. 생각해본 적 없는 실패와 준비없이 거둔 좋은 성적에 학업에 대한 열정 뿐 아닌 동기마저 모두 사라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육원 동기들만큼 치열하게 고교 진학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교육원 성적은 고교 진학과 크게 관련이 없었다. 당시의 나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살아감에 있어 단락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패에 대해 나의 노력이나 능력에 그 원인을 찾으려는 ‘복기’ 절차를 외면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는 새로운 출발마저 지연시켰던 것 같다.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보자!” 마음먹었던 것은 고3때였다. 이전까지, 중학교 때 우수했던 성적은 관성으로 작용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진도에 연연하지 않아도 늘 내 성적을 상위권에는 턱걸이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첫 모의고사 성적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객관적으로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것이 수면으로 드러나자 지금껏 외면했던 불성실함과 나태의 결과가 피부로 느껴졌다. 머리를 빡빡 밀고 남은 기간 학업에 정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에 두 번 더 도전하고 나서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공부를 한다’ 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학생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표면적으로는 그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공부라는 행위는 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적 동기이든 외적 동기이든, 학생이 가진 동기 없이는 공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을 구조화하고 저만의 논리를 정립시켜서 진정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능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학생 그 자신이 목표하는 수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선 자신의 능동적인 생산 활동이 수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진학할 때 스스로의 목적은 마음껏 헤매어 보자는 것이었다. 첫째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은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여겼고, 둘째로,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영역이 너무 다양했다.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했던 만큼 교양과목으로 다양한 컴퓨터 과목을 이수했고, 창업에도 도전했다. 전공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감했던 여러 계기들로 하여금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지금껏 이수한 30학점에 가까운 수업에서 아직은 한번도 A 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

물밀듯이 과제물과 시험 범위가 쌓여갈 때면 마치 집안에 홍수가 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들이치는 빗물이 내가 가진 바가지보다 커서 퍼내고 퍼 내어도 물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이라고 빗댄다면 내 자신의 상황을 더 없이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가지에 비유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용량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들이치는 속도가 퍼내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빠르게 무력감이 자리잡았던 것 같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더 쉽게 좌절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학습된 무력감’은 아직도 내가 지니고 있는 숙제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진 않지만, 어떠한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결국 무기력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 보다, 일부를 버림으로써 남아있는 리스트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양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